

## ■ 서평

# 시조(時調) 영역(英譯)의 길을 찾는 여정

신경숙\*

시조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우리의 대표적인 정형시이다. 또한 시조를 노래로 부르는 가곡(歌曲)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만큼 시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 정체성의 일부로 인지될 정도로 자부심 높은 장르이다. 한편 일본의 하이쿠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때로 세계인이 창작하기도 할 만큼 보급된데 비해, 시조는 여전히 우리의 자부심 안에만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도 있다. 세계와 대화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고 여기는 시조를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 적절한 번역 양식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정답을 찾는 길은 요원한 것만 같다.

강혜정의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영역의 전개양상』(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을 보여주어 매우 반갑다. 이 논문은 고시조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고시조 영역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 소개하여, 초창기 영역 시조가 밟아온 궤적을 밝히고 있다. 초창기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본국으로 떠난 선교사들의 자리를 국내의 한국인이 이어 받으며 시조를 번역해왔다. 논자는 이들이 이룩한

---

\*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영역 고시조를 무려 352수(재인용 제외 신출작 222수)를 찾아내고, 이들 번역시의 특성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긴 글이지만, 여기서는 그 사적 전개만을 논자의 글을 따라가며 간략히 소개해보기로 한다.

초창기 외국인 선교사의 시조 영역은 게일과 헐버트에 의해 이루어졌다. 게일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오랜 시차를 두고 3차에 걸쳐 번역을 시도했는데, 번역 원천자료는 시조창 가집 『남훈태평가』였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바뀔에 따라, 그리고 번역시가 놓이는 맥락에 따라 영역 시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인데, 1차 번역에서는 수용문학 중심적, 2차에서는 원천문학 중심적, 그리고 3차에서는 중간 혼합적 접근태도를 보였다. 헐버트는 3행 시조를 원전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번역에서는 길이가 매우 긴 다양한 형태로 번역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시조에서 느낀 감흥을 영어권 독자가 유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역 대신 의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고, 한국의 음악이나 문학이 갖는 독특함을 인정하였지만 문학 번역이라는 실천적 과제 앞에서는 자문화 중심적주의적 번역관을 갖고 있었기에 시조 원래의 모습보다는 완전히 서구화된 새로운 작품으로 변용하게 됐던 것이다.

1930년대 고시조 번역자들은 국내외의 한국인들이다. 이들은 국권을 침탈당한 약소민족으로서의 설움을 시조 번역을 통해 한국이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드러내고자 했다. 강용홀, 변영로, 정인섭, 변영태 4인은 시조 번역에서 각기 다른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먼저 삼일운동 후 미국으로 유학 갔던 강용홀은 번역 시조선집을 출간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읽혔던 소설 『초당』 『행복한 숲』 속에 영역 시조를 대거 삽입하며 한국의 전통시를 널리 알렸다. 당시 서양인은 동양에 대해 잘 몰랐기에 그릇된 정보로 한국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서양인을

향해 강용홀은 1차 번역을 통해 한, 중, 일로 대변되는 동양 특히 한국에도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Poetry’가 있음을 알렸는데, 이 때 한국을 대표하는 장르로 시조를 선택했다. 2차 번역에서는 소설의 개장시로 시조를 배치함으로써, 시조를 서구의 시와 다를 바 없는 ‘시(詩)’로 인식하게 하였고, 많은 삽입시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 속에서 시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향유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변영로는 4행시 번역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3행을 4행으로 옮기다보니 그 내용이 충실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시상이 전개되는 흐름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가 원작의 내용과 형식을 변형, 상실시키면서까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영시로서 각운을 맞추는 것이었다. 정인섭은 신문에 연재됐던 변영로 영역 시조의 성과를 논하고 향후 시조 번역의 실천 방향에 대한 『시조영역론』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이미 1930년대에 국내에서 번역시의 형식을 두고 얼마나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오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시조의 영어 번역에 있어 형식적 문제가 곧 본질적 문제임을 직시했다. 변영로의 영역 시조와 정인섭이 비평으로 국내 문단에서 시조 영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변영태도 이 흐름에 가세하였다. 그는 시조의 정형성을 소네트의 정형성에 빗대어 설명하고, 소네트의 형식적 특성을 차용하여 독특한 영역 시조의 형식을 만들었다. 변영태의 영역 시조는 최초로 정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아주 크지만, 그 정형성이 기존 영시의 한 갈래인 소네트의 일부를 차용해 왔기에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영역은 1930년을 기점으로 번역 담당층이 바뀌면서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역시조선집들이 출간되었고, 무엇보다 공론을 통해 영역 시조의 형식에 대해 논의할 만큼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역 시조의 역사 분석에는 논자 강혜정이 이들 자료를 발굴, 분

석, 해석하는 과정에 기울인 진하디 진한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깊은 애정, 끈질기게 추적해 들어가는 분석력, 엄정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우리 시조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논문조차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몇 가지를 보자.

이 논문에서 다룬 영역 시조 자료들은 기존에 발굴된 것들의 합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영역시 발굴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알려진 자료들의 배후 혹은 전후 관계를 새로이 밝혀내어 해당 자료의 위상을 새로 정립해주고 있다. 계일의 영역 시조들은 한번이 아닌 세 시기에 걸쳐 계일의 한국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는 양상과 함께 새로이 번역되었던 것임을, 이 사벨라 비숍의 영역시조는 험버트 영역 시조의 재인용이었음을, 강용홍 번역시에는 시조의 경계에 이슬이슬하게 존재하는 더 많은 작품들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변영로의 첫 영역 시조들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귀국 후 신문에 연재했던 영역 시조들까지 다수의 최초 발굴을, 변영태 번역시집은 기존 알려진 것과 달리 무려 십여년 전에 발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곁들여진 이들 영역 시조들의 출간과정과 이후 반응에 대한 추적, 그리고 논자가 발굴하게 된 계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여, 논자가 시조 번역에 기울인 과거 선배들의 작업을 얼마나 애정을 갖고 찾았으며 분석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자료 발굴 과정 자체가 연구 과정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어서 매우 신선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역 시조 발굴은 원천자료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빛난다. 오래된 번역시들이 참고한 원천자료 찾기관 그야말로 허무함과 대면하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논자는 아예 하나의 항목을 설정하여, 모든 번역시의 원천자료를 찾아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대개는 모두 찾아낸다. 심지어 특정 문헌인지 구전으로 연행된 자료인지 경험에 따른 기억의 산물인지까지 밝혀낸다. 이 부분에서는 논자가 가진 조선조 가집과

고시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시조 연행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만날 수 있다. 감탄스럽기까지 한 부분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글 전체에서 드러나는 연구사 검토와 논문 인용은 논자의 학문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연구사와 인용논문에 대해 독자의 궁금증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매우 상세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엄정한 연구자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이것만으로도 놀랍지만 이 글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논자 강혜정은 어떤 선행 연구이든 그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글이 나아갈 부분을 안내받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의 글에서는 앞선 선배 학자들의 노고에 보내는 진정한 존중과 자신의 길을 찾는 진지한 겸손함이 함께 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은 바로 논자의 학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문체에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이 글의 정점은 고시조 英譯에서 ‘무엇을 읽어낼 것인가’를 논하는 부분에 있다. 이 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큰 공을 들인 부분이다. 논자는 번역시들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번역이 나오게 된 경위를 분석해내고, 그것이 실제 시조와 얼마나 같고 달라지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해석해내고 있다. 이 과정은 논자가 ‘시조의 핵심’을 어디고 두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논자 강혜정은 정형시인 시조는 ‘내용과 형식’이 함께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조 번역은 단순한 외형적 특성이 아닌 시조 형식이 가진 미감, 즉 시조가 지닌 ‘반복과 전환의 구조’까지 번역시에서 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항간에는 시조의 외형적 정형성을 시조의 특질로 보는 관점이 통용되기도 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러나 그는 번역시 안에서도 시조라는 정형시의 형식에 과연 시조만의 독특한 미감의 부분이 정확히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하려 한다. 이런 엄정성은 시조가 우리 민족의 대표적 정형시 장르일 수 있는 시적 본질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어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런 번역이 결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번역자가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정형시로서 시조의 형식은 ‘서정적 전환과 완결’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구조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재 전범처럼 받아들여지는 6행 영역시조를 향해 ‘형식적 정형성 안에 과연 이러한 시조의 미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묻고 있다. 그가 이 논문에서 과거의 번역시를 돌아보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물음들에 스스로 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제 논자가 수없이 내렸던 물음은 우리 모두의 물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답변을 만들어가야 할 차례가 되었다. 학회에서 ‘2014년 한민족어문학회 학술상’으로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영역의 전개양상』(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논자 강혜정이 스스로에게 했던 ‘더 나은 시조 번역’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물음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